

油價안정과 產油量조정문제

- 대한석유회 조사과 -

1. 原油價 下落의 영향

85년말부터 시작된 급격한 油價下落으로인해 현재의 原油시장은 불안정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下落幅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는 消費國들로서도 이같은 석유위기에 대처할 포괄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입장이다. 현재의 유력한 西歐側 견해는 油價하락에 의한 純效果를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油價하락에 기인한 利益이 사회, 경제 및 정치적 손실을 충분히 相殺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더 나아가 멕시코와 같이 外債로 인해 극심한 苦痛을 받고있는 산유국의 경우도 별 문제점이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見解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상당히 의문스럽다.

첫째, 油價하락에 따른 이익은 대체로 過大評價된다는 점이다. 둘째, 설혹 이익이 示顯되더라도 언제까지 계속될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原油價急落은 산유국의 경제를 큰 혼란에 빠뜨린 것이 사실이다. 또한 油價下落이 불균형적이며 미미한 경제성장률이었던 특이한 호경기에 뒤이어 나타남으로써 많은 국가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이같은 경제적 어려움은 수백만이 失職되고 海外送金額이 急減된 勞動輸出國 즉, 이집트와 파키스탄등에도 파급되고있다.

또한, 아랍권의 非석유수출국들은 종전 아랍권 산유국들로 부터 받아들인 원조가 삭감됨으로써 고통을 받고 있다. 또한 이같은 경제적 손실은 제3세계나 석유산업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油價가 하락함으로써 代替에너지의 경

쟁력이 상실되어 전세계 대다수 국가들의 에너지 自給自足(Energy self-sufficiency)이 크게 위협을 받게 될 것이며, 에너지부문을 포함한 전체경제계획은 불확실성이 擴大될 것이다.

原油販賣收入이 축소됨으로써, 1970년대에 부진했던 세계무역에 큰 活力을 주었던 산유국(소련포함)들을 대상으로 한 주요수출시장은 매우 위축되었다. 현재의 석유위기 때문에, 산유국들은 지난 好景氣에 빌어 쓴 外債의 상환능력이 줄어들어 世界財政狀態에는 또다른 緊張要因이 발생했다. 이보다 더 극적인 변화는 결국 다음과 같은 현상을 招來할 것이다.

즉 향후 原油生産 및 추가비축에 있어 石油開發費 등 지출경비가 대폭 삭감되면 앞으로 큰 문제점이 남게되는 것이다. 현재의 油價하락폭이 크면 클수록 앞으로의 油價상승폭 역시 커질 수 밖에 없다. 原油供給過剩현상으로인해 에너지節約 및 效率性에 대한 노력이 줄었으므로 그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더우기 호전적인 산유국들이 석유시장을 지배하게되면 西方측은 原油공급 안정을 위해 무력사용을 再現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핵무기등 고도의 인명살상기술이 선보일 것이다. 이같은 역사의 후퇴는 물론 적절한 石油政策이 채택되면 피할 수 있다.

新에너지源의 개발과 절약기술연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소비국들은 세계에너지시장의 안정을 위한 長期政策을 채택함에 있어 현재와 같은 공급과잉상태를 충분히 활용하여야 한다.

소비자들은 현재의 低油價로부터 가능한 한 장기간 이익을 향유하려 할 것이며, 油價인상을 초래할 행위는 가급적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석유산업에 대한 비평 기사를 보면 소비자나 생산자 어느 한쪽만의 이익은 일시적이며 결국은 이익추구를 위해 구조적 변화를 계속 시도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의 이익이란 있을 수 없게 된다.

석유는 세계의 가장 중요한 商品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생산자, 소비자중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原油시장을 주도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원유시장의 安定을 위해서는 양자간의 협력이 절대 필요한 것이다.

2. 政治的 打開策의 모색

美國을 포함한 선진국 정치현실에서 볼 때 不當한 카르텔(Cartel)에게는 협조기 용납되지 않는다. 더우기 OPEC이 석유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공정한 해결방법을 제시 하리라고 믿는 국가는 하나도 없을만큼 OPEC에 대한 인상은 좋지 못하다.

그러나, OPEC은 석유위기를 타개할 충분한 能力이 있으며, 상호협력에 의한 장기적 이익을 소비국들에게 제시할 수 있다. 그 첫번째시도로 OPEC은 소비국들에게 現物市場에서의 가격변동과 상관없이 일정기간동안 고정가격으로의 물량공급을 제시하였다. 이 提議는 現物시장의 가격추이에 따라 물량을 船積者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條件("take it or leave it" basis)이었다.

그러나, 여러가지 시장안정화계획중 가장 중요한것은 OPEC會員國간의 장기적 합의이다. 이같은 합의가 이뤄지면 OPEC에 협조적인 非OPEC산유국(멕시코, 이집트, 말레이시아, 오만, 앙골라, 중공 및 노르웨이)들은 公式적으로 OPEC路線에 참여할 것이다. 예를 들어 非OPEC을 포함한 산유량할당합의는 제3세계의 대다수 산유국들이 外債償還 및 정부재정충당을 原油收入金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중의 하나이다.

財政的 壓迫이 심한 국가들은 산유량할당이 自國에 유리하지 않을 경우, 동문제 해결에 비협조적일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각국의 人口數, 財政需要 및 對外負債정도에 따라 할당량을 책정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종전의 生産水準 및 패턴등도 중요한 기준입에 분명하다.

그러나, 최고생산능력이나 原油매장규모등은 산유량할

당에 있어 2차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 또한 既合意된 생산량의 준수/가격수준의 유지 그리고 단기적 파동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산유국이 참여하는 清算所(clearing-house)가 필연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현재 시행되는 產油量割當制度는 未洽한 점이 많다. 실질적인 생산협정준수를 위하여는, 현재 확산일로에 있는 現物 및 先物市場에 존재하는 구조적 불안정요인등이 밝혀져야 된다. 현 세계원유가격 메커니즘을 左右하는 現·先物시장들이 계속해서 미래에도 適切供給線으로 활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原油공급량의 과다로 말미암아 현재 現物 및 선물거래를 하는 트레이더 및 투기꾼들이 큰 이익을 누리며 소비자들 역시 原油구매에 있어 유연성을 가짐에 따라 兩市場은 대성황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들 변화무쌍한 시장에서 強勢가 계속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에너지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게 된다.

현재의 原油공급과잉이 해소될 경우, 가격변동 및 불확실성에 의한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現物 및 선물거래의 투기적성질 때문에 原油공급량이 조금만 부족해도(일시적 현상일지라도) 油價는 대폭상승할 것이다.

油價安定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장기공급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이는 產油國 國營石油會社가 소비국의 정부기관이나 소규모기업등과 일정기간 공식가격으로 原油공급계약을 맺었던 70년대말의 石油政策을 의미한다. 자유시장에서 이익을 만끽할 수 있는 현시점에서는 위와 같은 정책으로의 復歸는 시대착오라고 느껴진다.

그러나, 현 석유시장에는 再統合의 징표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쿠웨이트와 베네수엘라를 초기의 메이저들처럼 垂直的統合體를 만들어 他선진공업국에 정유공장과 판매회사를 설치하려는 산유국속에 포함된다. 이러한 統合構造내에서는 現物 및 선물시장이 불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수직적 통합구조가 구체적인 기능을 발휘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 따라서 산유국과 소비국간의 산유량 및 가격에 대한 협정이 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需給의 불균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原油 수급계획이 5년이나 10년단위로 수립되어야만 한다. 또한 소비국들은 新에너지源의 개발과 에너지効率性 및 절약수단의 향상을 통해 國別, 지역별 특성에 맞는 未來의 에너지활용지침을 설정해야 한다. 相互協議에 의해 생산자와 소비자는 經濟的/生態的 및 정치적으로 유리한 에너지 시나리오를 선택

할 수 있을 것이며 일단 協議가 이뤄지면 산유국들은 상기 시나리오에 반영된 原油需要에 맞춰 산유량을 조정하여야 된다.

原油交易의 안정성은 지역별 수급협정을 맺어, 이를 준수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즉 해당지역 以外에서의 原油공급은 해당지역의 단기적 수급불균형에 對處하기위해 활용되어야만 할 것이다.

3. 原油價의 결정요인

原油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油價는 이제까지 어떤 균형점에 도달하지못하고 최저 1.80\$/B에서 최고 40\$/B까지 騰落을 계속하여왔다. 세계석유산업은 小數獨占상태이므로, 가격결정에 있어 장기적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요인이없다. 메이저(Seven sisters)가 석유시장을 支配하던 당시에 油價를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한 까닭에 70년대에는 反騰현상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석유시장이 크게 변해 현재의 가격불안정의 主原因이 된 것이다. 따라서 油價를 지속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原油의 평균생산비용을 고려하여 油價가 결정되어야 한다. 현재, 中東의 생산단가는 2~3\$/B정도이나 美國의 경우는 15\$/B에 이르고 있다.

둘째, 北海와같이 20\$/B이상 生産費가 소요되는 지역은 原油개발에 대한 投資를 촉진시킬 수 있는 요소가 반영되어야 한다. 이같은 가격상의 支援은 미래의 자원개발을 위한 國際基金에서 承擔되어야 한다.

셋째, 대다수 산유국들에 있어서 石油은 중요한 富의 源泉이므로 原油매장량의 한정성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넷째, 선진공업국의 수출가격指數나 인플레이션등을 考慮하여야 된다.

다섯째, 代替에너지가격을 감안하여 原油價가 결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西유럽의 경우 석탄생산비용은 原油換算時 15~30\$/B이며 석탄에서 綜合에너지를 생산하면 그 비용이 33~65\$/B정도 된다. 또 태양에너지와 바이오매스(biomass)같은 대체에너지를 생산하는데는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물론, 原油價를 이처럼 비싼 代替에너지 가격水準과 비슷하게 인상하는 것은 불합리하지만, 대체 에너지價格과 어느정도의 균형을 유지시키면 새로운 에너지 資源의 개발에 큰 도움을 줄수도 있다.

여섯째, 소비절약의 한 수단으로 일정수준이상의 消費에 대하여는 보다 높은 가격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같은 가격자동장치는 소비국내의 內需을 줄이기위해서만 활용되어야 한다. 이는 기본에너지需要는 원칙적으로 價格彈力性이 없다는 원칙에서 價格슬라이드제에 의해 사치적 소비를 억제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일곱째, 소비국중 富國이 貧國보다 더 싼 가격으로 原油를 구입할 수'있도록 국제원유가격이 二重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멕시코와 베네수엘라는 "San Jose조약"을 맺어 라틴아메리카의 10여개국에 이미 국제시장가격의 80%정도로 原油를 공급한 적이 있다.

한편, 산유량 割當문제는 아무리 정교하게 작성되더라도 財政狀態가 나쁜 산유국에 대한 支援制度가 강구되지 못하면 별 實效를 거둘 수 없다. 따라서, 자금압박이 심한 산유국들에게는 경제조정자금(economic adjustment fund)이 설치되어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이 資金은 產油國 자신들이 마련하거나 世界銀行등 국제적인 기구가 조성할 수 있다. 이러한 實例로, 최초의 油價폭등 直後 선진공업국들이 산유국으로부터 資金을 借入하여 國際收支에 큰 곤란을 겪는 原油수입국에 자금대여를 해줄 목적으로 IMF에 石油貸付資金을 설치한 바 있다.

그러나, 油價폭락으로 상황이 바뀐 지금, 위와 유사한 기구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산유국은 없다. 따라서, 兩者의 어려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금조성이 되어있지 않으면, 產油國들은 자국의 輸入代金지불이나 외채상황에 따른 자금부족을 메꾸기위해, 油價를 인하하여 시장몹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감행할 우려가 있다.

한편, 原油소비국의 수입대금과 산유국의 구매력사이의 큰 격차를 줄이기위해 현재 原油價를 표시하는 美國 달러貨를 점차 他通貨로 代替시켜나가야 한다. 즉, SDR과 같은 국제화폐단위나 산유국과 수입국의 通貨를 연결하는 방안이 原油價値를 더 잘 표시할 수 있다.

세계경제에서 美國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짐에 따라, 국제원유시장에서의 역할축소는 당연한 일이다. 原油貨金決濟를 달러貨 이외의 通貨로 대체해나간다면, 제3세계국가들은 원유수입시 通貨交換을 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국제원유시장에 새로운 장해요인으로 등장한 특정국(즉, 美國)의 通貨정책수행에 의한 逆機能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 (OPEC Bulletin 87年 3月號)